

한국타이어, Tokyo Auto Salon 참가

한국타이어는 1월 11-13일 Tokyo Nippon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및 튜닝 박람회인 Tokyo Auto Salon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타이어는 전시 부스를 친환경제품(Eco Zone), 럭셔리 고급제품(Luxury High-end), 모터스포츠(Motor Sports) 제품으로 나누어 한국타이어만의 다양한 제품 및 튜닝카에 적용된 혁신적 제품들을 전시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전시되는 제품들은 실리카 소재를 이용한 연비절감 효과로 이루어낸 친환경 컨셉의 제품 라인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급자동차에 장착되는 초고성능 타이어 Ventus S1 evo와 스포츠 드라이빙 타이어인 Ventus V12 evo가

소개될 예정이다.

또 모터스포츠 분야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Super GT, 독일 뉘버그링 24시 및 미주 ALMS(America Le Mans Series)등 세계 유명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성능을 검증 받은 Ventus F200 타이어 실물을 Super GT에 출전하고 있는 Hankook NSC Porsche팀 차량과 함께 전시한다.

한편, Tokyo Auto Salon 2008은 1983년 시작된 이래 26회째를 맞이하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및 튜닝 박람회로 Toyota, Honda, Suzuki를 비롯한 300여사가 참여해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1/11>